

# 충남의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거래 활성화 필요

충남의 대중국 무역 비중이 2001년 10.5%에서  
2013년 34.3%로 가파르게 상승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비중은 2% 미만

2013년 충남의 대중국 수출액은 30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279억 달러 흑자로 전체 무역흑자의 88.8%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충남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충남의 對中 수출은 연평균 25.8%, 對中 수입은 1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충남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5%에서 2013년 34.3%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대중국 교역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금년 2/4분기 중 수출의 1.9%, 수입의 0.8%에 불과하다.

## 위안화 거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 및 대중국 거래 증진 기대

### ① 환리스크 부담 감소

중국과의 거래에서 무역대금을 美 달러화(USD)로만 결제하는 경우에 비해, 위안화(RMB) 활용을 병행하는 경우 환리스크가 분산된다. 특히, 중국 현지에 법인이 있어 국내 본사와 거래가 활발한 기업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의 환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 ②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각종 외국환 거래에 따른 규정 및 절차 간소화

중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기업의 경우, 위안화 이외의 외국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의무 부담을 덜 수 있다.

### ③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위안화 거래 시 거래비용 절감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환전 시 외환 중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이 감소하여, 대고객 환전시장에서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외국환은행의 주된 거래방식인 홍콩소재 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에 비해 결제단계가 감축되어 비용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④ 중국 기업과의 관계 강화와 거래 증진에 도움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위안화 거래를

요구하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는 중국 바이어 및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고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중국과 우리 정부의 위안화 활용 촉진 노력

중국 정부는 2009년에 위안화의 무역결제 활성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자국통화 국제화를 본격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금융 분야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역외허브를 적극 육성하는 영국·홍콩·싱가포르 등의 움직임과 더불어 위안화는 무역 결제통화 단계를 넘어 금융 투자에 활용되는 투자통화로서 그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 무역 시 위안화 결제 비중이 2012년 1월 5.5%에서 2014년 8월 18%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 가운데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에 38.5%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과 제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10.31일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현재 對중국 무역액의 1.2%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충남의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거래 활성화 필요

이에 따라 금년 12월 1일 국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는 등 위안화 거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1월 6일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출범 이후 총 6개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거래중이며, 12월 1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단계를 한 단계 줄임으로써 거래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거래량이 증대하도록 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과 위안화 금융상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은 무역결제 관련 서비스도 계속 확대 예정이다. 중국은 충남의 최대의 교역상대국이므로 위안화 거래의 편익을 정확히 알고 직거래시장을 활용한다면 충남의 무역업체들은 새로운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 충남 대중국 수출비중 증가에 따라 위안화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충남의 대중국 무역 비중 추이를 보면,



**수출 1위 국가**  
2013년 전체 수출의 47.6%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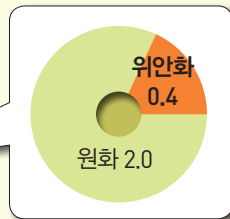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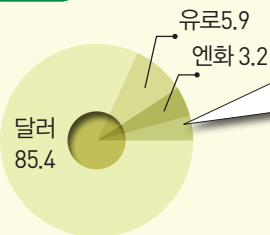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  
2013년 전체 무역흑자의 88.8%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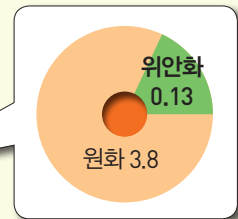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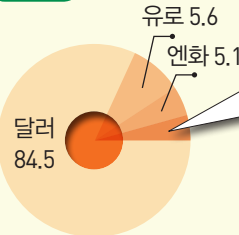
**교역 비중의 급성장**  
'01년 전체 교역액 대비 10.5%  
→ '13년 전체 교역액 대비 34.3% 차지

우리나라 결제통화별 수출입 비중 (2014.1~6P, %)

수출



수입



위안화 거래에 따라 우리 기업이 얻게 될 편익은?

환리스크 부담 감소



주요 결제통화인 달러의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각종 외환 거래에 따른 규정 및 절차가 간소화돼요.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위안화 거래시 거래비용 절감



은행간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환전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중국 기업과의 관계  
강화와 거래



앞으로의 충남은?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 단계 축소로 인한

